



광주 자치경찰, 학교전담경찰관들과 간담회
광주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2일 북부 청소년 경찰학교에서 경찰서별 학교 전담 경찰관(SPO)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호남대 총학생회,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호남대학교가 1, 3학년과 4학년 일부학과의 대면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제35대 위-하어(we: higher) 총학생회가 2일 교내 정문 사거리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며 건강한 2학기를 보내자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교육청, 복지시설 생활용품 전달
전남도교육청이 2일 민족 교육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함평서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 생필품 전달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노명하)는 함평농협(조합장 천성선)과 함께 최근 함평에서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펼쳤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을 선정해 일손 돕기, 생필품 전달 등의 지원책을 통해 영농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농업인들이 재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희망동행 프로젝트의 대상은 함평에 사는 이 모씨(57)이며 오래전 영농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해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던 중, 농협자산관리회사의 농업인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채무를 감면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의 직원들이 함평농협과 함께 이 씨를 응원하기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우성진 기자

인사
◇**조산대학교** ◇승진 ▲총무관리처 처 총무관리부처장 김권수 ▲취업학생처 학생지원부처장 김홍하 ◇전보 ▲연구처 산학연구 진흥팀장 김옥자 ▲정보관리팀 정보관리팀장 염현주 ▲취업학생처 취업지원부처장 조규선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 구승림 ▲단과대학 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 김영목 ▲기획조

“주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어 감사해요”

서구 자율방재단 문순자 단장

재해복구·반찬 나누기 등 33년째 지역사회 봉사 침수 피해 방지 등 동네 위험요소 예찰활동 주력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동네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광주 서구 자율방재단 문순자 단장(57·여)은 지난 1988년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33년째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문 단장이 나서서 일은 다양하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누드리기, 산사태 피해복구, 산불 피해 복구, 지역 노인시설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굿을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동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예방 조치에 나서서 것도 문 단장이 이끄는 방재단의 일이다.
문 단장 “오랜 봉사활동을 바라보며 자녀들도 바르게 컸고 저도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었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때가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주변에 봉사할 거리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문 단장과 방재단원들의 노력은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역에서 빛을 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019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지역 파견이다.
문 단장은 “산불 피해지역에 파견을 나갔지만 여자가 단장이라는 이유로 주민들



이 반기지 않았고 사진이나 빨리 찍고 가라는 식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하지만 진심을 다해 피해복구를 하고 진심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주민들이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며 초코파이, 두유

등을 주며 사진을 같이 찍은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어 “집이 전소되거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분이 다음에 가족끼리 고성을 방문하게 되면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유와 배려의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단장과 방재단원들은 최근 들어 잦은 비로 우려되는 침수 피해 방지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문 단장은 “비가 오기 전 주민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로, 붕괴 위험이 있는 곳, 막힌 배수구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살피는 것이 방재단 임무 중 하나다”며 “단원들과 지역 곳곳을 다니며 예찰 활동에 더욱 힘을 쓸 계획인 만큼 주민분들도 안전을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임채민 기자



진도경찰서, 유인도서 주민과 간담회 김신조 서장, 금호도 등 섬 방문 치안활동

진도경찰서는 1일과 2일 이틀간 관내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은 유인도서 중 고군면 소재 금호도와 조도면 소재 성남도, 옥도 등 6개의 섬을 방문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도서지역 현장치안점검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도서 수색 작전과 병행했으며 김신조 진도경찰서장이 직접 정보보안·여성청소년·생활안전 등 부서별 진단팀을 구성해 치안서비스가 미치지 어려운 지역을 살폈다.
특히,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공·폐가 등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도서지역 주민 신고 향상을 위해 밀입국 사례도 알렸다.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지팡이, 안전모, 물티슈, 마스크 등 200여개 홍보용품을 무료로 배부했다.
김호도 채종학 이장은 “경찰이 수시로 섬 마을까지 방문,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신조 진도경찰서장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곁에 있는 진도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이달의 5·18유공자 리영희 선생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리영희 전 한양대학교 교수(사진)를 선정했다.
고인은 1980년 5월 17일 예비검속으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이튿날 전국 계엄령 확대가 선포되자 ‘광주에서의 폭동 배후 조종 주모자’로 조작돼 고문을 받았고 약 두 달 만에 풀려났다.
고인은 2010년 12월 5일 타계했고 “화장한 뒤 광주에 묻어달라”는 뜻에 따라 국립 5·18민주묘지 제1묘역 7-4번 묘소에 안장됐다.
리 전 교수는 1929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태어나 경성공업학교(현 서울공고)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국군 소령으로 예편하고 나서 1957년부터 합동통신에서 기자로 일하다 1964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조선일보 등에서도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해직되기도 했다. 1972년부터 1995년까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각각 4년간 해직됐다. 1989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되는 등 일생에서 8년이나 옥고를 치렀다.
‘전환시대의 논리’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등 1970~80년대 대학생의 필독서처럼 여겨졌던 많은 저서를 남겨 ‘실천하는 지성’이자 ‘사상의 은사’ 등으로 불렸다.
/오선우 기자



동강대 장우진 교수 국토부장관 표창

동강대학교 지학과 장우진 교수가 최근 ‘2021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국가 공간 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스마트 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전문 박람회이다.
장우진 교수는 공간정보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공간정보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국건설교통기술개발원, 공간정보연구원 등의 공간정보구축연구사업에 참여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적 NCS 학습모델’ 개발과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 한국지적학회 논문상 등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나라 기자



북부소방, 펌블런스 대원 현장교육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1일 119안전센터별 펌블런스 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펌블런스(Pumbulance)는 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구급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동시스템이다.
이번 교육은 펌블런스 현장활동에 대한 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구급대원 안전조치 사항 교육 등을 실시했다.
조종훈 119재난대응과장은 “사각지대 없는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펌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론 ▲박흥식(비아눔협 조합장)·김혜경씨 아들 민진군, 배제현·최문선씨 딸 소혜양=4일(토) 오후 6시 광주광산구 임파울대로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최영인(북서울농협)·정미숙(숙서울법인재무 경영지원본부 부장)씨 아들 준형군, 김상선(전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객원교수)·이명숙(전 초등학교 교감)씨 딸 희정양=5일(일) 낮 12시1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더컨벤션 송파문정 12층 그랜드볼룸.
▲여원찬·이현씨 아들 승근군, 윤용운(주식회사 웅산 대표이사)·박정은씨 딸 나경양=5일(일) 낮 12시30분 서울 중로구 새문안로 포시즌호텔 3층 그랜드볼룸.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모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서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